



Global Market Report 14-009

2014.04.08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I. 한-호주 FTA 주요 내용

- | | |
|---|---------------|
| 4 | 1. 협상 경과 및 의의 |
| 5 | 2. 상품양허 주요내용 |
| 7 | 3. 한-호주 교역 동향 |

II.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 | | |
|----|----------------|
| 8 | 1. 광섬유 케이블 |
| 11 | 2. 광통신 부품 |
| 14 | 3. 전력 케이블 |
| 17 | 4. 납축전지 |
| 20 | 5. 공기청정기 필터 |
| 22 | 6. 알루미늄 자재 |
| 26 | 7. 못, 너트 |
| 30 | 8. PVC 바닥재 |
| 33 | 9. 폴리스티렌 |
| 36 | 10. 유기계면활성제 |
| 39 | 11. 자동차 범퍼 |
| 43 | 12. 면류 |
| 46 | 13. 음료 |
| 49 | 14. 화장품 |
| 53 | 15. 산업용 세라믹 용기 |

요 약

□ 한-호주 FTA 협상 타결 결과

- 실질적 타결 : '13년 12월 4일
- 정식서명 : '14년 4월 8일

□ 협상 주요내용

-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 (호주) 품목 수 90.8%, 수입액 86.0%에 해당하는 품을 즉시 철폐, 품목 수 99.5%, 수입액 100.0%에 대해 5년 내 철폐
 - (한국) 품목 수 75.2%, 수입액 72.4%에 해당하는 품목 즉시 철폐, 품목 수 94.3%, 수입액 94.6%에 해당하는 품목은 10년 내 철폐
- (호주측 상품양허) 자동차 및 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 자동차(관세율 5%) 전 품목 3년 내 철폐(호주의 對韓 자동차 수입액의 76.6%에 대해 즉시철폐)
 - TV·냉장고 등 가전제품(5%), 전기기기(대부분 5%) 및 일반기계(5%) 대부분 즉시철폐, 자동차부품(5%)은 3년 내 철폐
- (한국측 상품양허) 농산물 부문은 기존 FTA 대비 보수적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
 -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그 이외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40%)를 장기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하여 수입 급증 시 국내 산업 보호장치 마련

□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산업	품목명	관세(%)	'13 對호주 수출액 ¹⁾ (천 달러)	'13 수출 증가율(%)	MCA 지수	유망사유
1	통신	광섬유 케이블	0, 5 ²⁾	34,398	73.1	0.05	· 현지 전국적 광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로 인한 수요 증가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의 품질 인식이 좋지 않아 한국산 광통신 제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
2		광통신 부품	5	7,174	21.2	0.09	· '09년부터 진행된 현지 광통신 시스템 전환에 따른 관련 장비 수요 증가세 · 현지 제조기반 부재로 인해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이 국내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3	전기·전자	전력 케이블	5	18,930	11.7	1.52	· 노후 전력 케이블에 대한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 · 관세인하 이후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4		소형 납축전지	5*	2,935	39.3	1.26	· 호주 내 소형 납축전지의 사용이 산업용 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며 수요처가 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크기 및 종류가 다양한 한국산 제품이 유리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5		공기청정기 필터	5	271,091	260.8	0.74	· 호주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에 대부분의 공장 및 건설 프로젝트에 공기청정기 필터(산업여과기)를 사용 · 현지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 플랜트 및 산업프로젝트 발주 증가로 프로젝트에 사용될 산업여과기 수입수요 증가 예상
6	건축자재	알루미늄 플레이트	5	2,056	4.3	1.27	· 자동차산업 위축으로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호주 건설경기 회복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음. · 식품 가공산업에서의 수요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
7		못, 너트	5	9,064	159.9	0.63	· 원가절감을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호주산 비중 축소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세 ·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경쟁력 제고 기대
8		PVC 바닥재	5	10,141	57.5	1.35	·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카펫 바닥재에 대한 수요가 위생문제 및 트렌드 변화로 줄어들면서 공공장소와 개인 단독주택에도 PVC 바닥재 수요가 확대 ·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품질에서 우위를 가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1) World Trade Atlas의 對한국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2) HS Code 9001.10은 5%, HS Code 8544.70은 0%

	산업	품목명	관세(%)	'13 對호주 수출액 (천 달러)	'13 수출 증가율(%)	MCA 지수	유망사유
9	석유화학	폴리스티렌	5*	16,068	472.9	2.60	·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호주 제조업의 고비용 구조에 따라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수요 확대 중 · 고가의 단열재 원료인 폴리우레탄 대체제로 폴리스티렌 수입이 '12년도 이후 큰 폭으로 상승
10		유기계면활성제	5	16,405	9.2	12.87	·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현지 생산은 가정용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제품의 진출 여지가 많음.
11	자동차 부품	자동차 범퍼	5	7,316	12.8	0.02	· OEM 부품시장이 아닌 A/S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호주 내 한국 자동차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FTA 체결로 한국차 수입이 더욱 늘어나면 A/S 부품시장도 확대
12	식품	국수 등 면류	5	7,614	1.5	2.56	· 한류에 따른 한국식품의 인지도 상승과 FTA 관세인하 효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현지의 시장지배적인 슈퍼마켓 체인에서 아시아 식료품 코너를 확장하는 상황 · 일부 한국 기업이 지사 설립 등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식품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		음료	5	2,048	5.0	1.35	·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음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천연재료를 소재로 개발된 음료의 수입이 증가함. · 해당품목은 주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아시아계 소비자의 아시아산 음료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14	기타 품목	화장품	5	7,323	32.2	0.69	· 호주 화장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 평균 3% 이상의 꾸준한 성장 예상 · 30대 미만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아시아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존 고객인 아시아계 이민자와 관광객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적인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음.
15		산업용 세라믹 용기	5	1,915	57.8	1.97	·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식이 크게 개선 · 제조업 R&D 투자확대로 산업용 수요 자체가 증가세

* 품목선정 기준 : ① '13년 기준 호주의 對한국 수입 100대 품목 중 중소기업 관심품목(對韓 수입이 '13년에 증가한 FTA 관세 인하 품목)

② 對호주시장 수출경쟁력(시장비교우위지수 활용)

③ 주요 현지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 인터뷰 결과 종합

* 주) * 표시된 품목은 5년 균등 관세인하. 나머지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철폐

I 한-호주 FTA 주요 내용

1. 협상 경과 및 의의

□ 협상 경과 및 향후 일정

- (협상 개시) '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 개시 선언
 - '10년 5월 제5차 공식협상 이후 쇠고기 양허수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²⁾)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바 있음.
 - '13년 11월 협상 재개로 제6차 공식협상 시 주요 쟁점에서 진전 달성
- (실질 타결) '13년 12월 4일 양국 통상장관회담 시 협상 실질적 타결 확인
- (가서명) '14년 2월 10일 한-호주 FTA 가서명
- (정식서명) '14년 4월 8일 호주 총리 방한 시 협정 정식서명
- (향후일정) 양국 국회 비준 후 한-호주 FTA 발효 전망

□ 타결 의의

- (신시장 개척) 호주는 '12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2위(GDP 1조 5,859억 달러) 국가로, 1인당 소득수준 세계 5위(6만 7,347 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시장
- (안정적 자원확보) 호주는 한국 광물자원 수입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주요 자원 수입대상국으로, FTA를 통해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에 보다 안정적인 자원공급이 기대됨.
 - * '13년 기준 호주는 한국 전체 철광 수입액의 72%, 유연탄 수입액의 45% 차지
- (상보적 무역구조) 한국은 공산품 위주의 수출, 호주는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로 이상적인 FTA 파트너로 꼽힘.
 - 호주는 1차 산업 및 서비스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경제구조로 제조업 부문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 * 對호주 주요 수출품목 : 경유(22억 달러), 승용차(20억 달러), 자동차부품(2억 8,000만 달러) 등
 - 對호주 주요 수입품목 : 철광(60억 달러), 유연탄(52억 달러), 원유(18억 달러) 등('13년 기준)

2) Investor-State Dispute

2. 상품양허 주요내용

□ 양허 수준

-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 (호주) 품목 수 기준 90.8%, 수입액 기준 86.0%에 해당하는 품목을 즉시 철폐, 품목 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0%에 대해 5년 내 철폐
- (한국) 품목 수 기준 75.2%, 수입액 기준 72.4%에 해당하는 품목을 즉시 철폐, 품목 수 기준 94.3%, 수입액 기준 94.6%에 대해 10년 내 철폐

<한-호주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우리 양허				호주 양허			
	품목수	비 중	對호주 수입액	비 중	품목수	비 중	對한국 수입액	비 중
즉시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70	44.4	2,149	43.5
3년/3A	1,019	8.6	367	2.4	115	1.9	434	8.8
5년	564	4.7	2,684	17.5	411	6.8	256	5.2
7년	265	2.2	15	0.1	-	-	-	-
8A	-	-	-	-	32	0.5	1	0.0
10년	413	3.5	335	2.2	-	-	-	-
(10년 내)	11,201	94.3	14,498	94.6	6,008	100%	4,939	100%
10년 초과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감축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 외/ 현행관세	171	1.4	25	0.16	-	-	-	-
총 합 계	11,881	100	15,330	100	6,008	100	4,939	100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14.2.14일)

주 : 품목 수는 HS 2009년(한국), 2007년(호주) 기준, 금액은 '07~'09 수입액 평균

□ 호주측 공산품 상품양허

- 對호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를 통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 선점
 - 자동차(관세율 5%)는 가솔린소형(1,000~1,500cc), 가솔린중형(1,500~3,000cc) 등 對한국 자동차 수입액의 76.6%를 즉시철폐
 -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대부분 3년 내 철폐, 타이어(관세율 5%)는 대부분 즉시철폐
 - 가전제품(관세율 5%)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즉시철폐, 전기기기(관세율 5%)도 전선, 변압기 등 즉시철폐
 - 일반기계(관세율 5%)는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공기조절기 등 일반기계에 대해 대부분 즉시철폐
 - 철강(관세율 5%)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에 대해 대부분 즉시철폐, 일부 품목은 5년 철폐
 - 석유화학(관세율 0% 또는 5%)은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대부분 즉시철폐, 일부 품목은 5년 철폐

□ 한국측 농산물 상품양허

- 농산물 부문은 기존 FTA 대비 보수적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
 - 품목 수 기준 61.5%를 10년 내 관세철폐하고, 38.5%(579개 품목)를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양허제외 등의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
 - *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취급 비율(품목 수 기준) : 한-미 FTA 123%, 한-EU FTA 14.7%
 -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그 이외 저율관세할당(TRQ³⁾),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40%)를 장기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⁴)를 설정하여 수입 급증 시 국내 산업 보호장치 마련

3) Tariff Rate Quota

4) Agricultural Safeguard

3. 한-호주 교역 동향

□ 교역 동향

- '13년 기준 호주는 우리의 7대 교역대상국(수출 13위, 수입 6위)
 - 장기적으로 교역량은 증가 추세이며 철광, 유연탄 등 자원 수입액이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해 만성적인 적자구조

<한-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4,692 (23.1)	4,691 (-)	5,171 (10.2)	5,243 (1.4)	6,642 (26.7)	8,164 (22.9)	9,250 (13.3)	9,564 (3.4)
수입	11,309 (14.7)	13,232 (17.0)	18,000 (36.0)	14,756 (-18.0)	20,456 (38.6)	26,316 (28.7)	22,988 (-12.6)	20,798 (-9.7)
수지	-6,617	-8,541	-12,829	-9,513	-13,814	-18,152	-13,738	-11,204
교역액	16,001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38	30,33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주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수출입 품목

- 석유화학·제조업 제품 위주로 수출, 광물·에너지 자원 및 농축산물 수입

<對호주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경유	2,219	23.2	철광	5,984	28.8
승용차	1,964	20.5	유연탄	5,170	24.9
휘발유	885	9.3	원유	1,750	8.4
철구조물	656	6.9	가축육류	862	4.1
제트유 및 등유	363	3.8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777	3.7
자동차부품	279	2.9	동광	742	3.6
건설중장비	148	1.5	기타 금속광물	599	2.9
합성수지	136	1.4	무연탄	512	2.5
칼라TV	134	1.4	천연가스	451	2.2
전선	116	1.2	곡류	433	2.1
소 계	6,900	72.1	소 계	17,280	83.2
전 체	9,563	100.0	전 체	20,785	10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주 : MTI 4단위 기준

II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선정 기준>

- ① '13년 기준 호주의 對한국 수입 100대 품목 중 중소기업 관심품목
(對韓 수입이 '13년에 증가한 품목이자 FTA 관세 인하 품목)
- ② 對호주시장 수출경쟁력(시장비교우위지수 활용)
 - *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 :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對호주 수출 비중과 對세계 수출 비중을 비교하여, 1보다 크면 호주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 ③ 주요 현지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 인터뷰 결과 종합

통신

1. 광섬유 케이블

품목명	광섬유 케이블	HS Code	9001.10 8544.70
現수입관세율	5%(9001.10), 0%(8544.70)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현지 전국적 광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로 인한 수요 증가 ▪ 시장에 유통 중인 중국산에 대한 품질 인식이 좋지 않아 한국산 광통신 제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긍정적 효과 예상		

□ 수입동향

- 호주의 광섬유 케이블 수입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0.7% 증가한 2억 달러를 기록
- '09년 시작된 호주 정부의 전국 광대역통신망 구축 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Network) 진행으로 인해 광케이블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19년까지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케이블 제조업체 Prysmian社, Corning社, Nexans社, Belden社가 현지 공장을 통해 상당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의 해외 소재 공장을 통해서도 수입하고 있음.
- 유통업체들도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수입하여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112,322	55.6	156,986	39.8	205,146	30.7
1	중국	17,870	2.1	32,807	83.6	55,270	68.5
2	미국	29,824	65.2	40,596	36.1	48,228	18.9
3	멕시코	22,023	794.2	22,419	1.8	41,209	83.8
4	한국	12,397	-18.8	19,873	60.3	34,398	73.1
5	이탈리아	12,199	50.8	7,468	-38.8	4,532	-39.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HS Code 8544.70과 HS Code 9001.10의 수입액을 합산하여 집계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Service Stream	특기사항	통신망 구축 전문기업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EPC 업체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동 사는 광통신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품질이 좋은 한국산 광통신 제품을 선호 ▪ 관세 철폐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같은 가격대이면 한국산 제품을 선택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거래 시 호주달러 결제 선호		

기업명	Madison Technologies	특기사항	광통신 관련 유통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광섬유케이블, 광 관련장비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추진했다가 가격이 높아 추가 수입을 중단한 경험 있음. - 관세 철폐로 공급가격이 조정될 경우 경쟁력 향상 기대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이 분야는 현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분야임. - 한국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으나 인지된 브랜드는 없으므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중요함.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한국산 광통신 제품의 품질 인지도가 높긴 하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 아직까지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현지 주요언론을 통해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우수성이 수차례 소개된 바 있어 한국 광통신 기술 및 제품에 대해 매우 호의적임.
 - HS Code에 따라 0% 혹은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FTA 발효로 모두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며, 현재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수한 품질 유지 및 국제 규격의 인증 필수
 - 한국산 제품의 강점인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EC⁵⁾ 또는 TIA/EIA⁶⁾와 같은 국제인증 규격 확보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
 - 바이어들은 가격만큼이나 기업의 거래 내역을 중시하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하므로 현지 서비스업체 지정 또는 대행 에이전트 등 현지 사후관리채널을 구축해야 함.

5) 품질이 인증된 전자부품의 국제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내 인증관리위원회(CMC : 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산하에 발족한 국제적 품질 인증제도

6) 미국 전자공업협회(EIA)와 통신산업협회(TIA)가 책정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의 표준 규격

2. 광통신 부품

품목명	광통신 부품	HS Code	8517.70.10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09년부터 진행된 현지의 광통신 시스템 전환에 따른 관련 장비 및 소모품 수요 증가 예상 ▪ 현지 제조기반 부재로 인해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이 국내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동향

- 광통신 부품 수입에서 수입국별 증감이 매년 변동하고 있음.
 - 이는 시장 지배적인 브랜드가 없어 미세한 가격차이로도 거래선 변동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국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여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
 - '13년 한국 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21.2% 증가한 7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호주와 FTA를 체결한 태국 제품의 '13년 수입은 전년대비 11.3% 증가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광 패치코드, 광 커넥터 등이 있으며 특히 패치코드의 경우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관세 철폐로 인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738,645	41.0	568,309	-23.1	490,815	-13.6
1	중국	260,683	36.3	222,544	-14.6	234,187	5.2
2	말레이시아	83,880	153.5	57,926	-30.9	42,378	-26.8
3	미국	87,547	5.5	74,565	-14.8	42,317	-43.3
4	태국	21,670	34.1	19,431	-10.3	21,629	11.3
5	이탈리아	26,767	87.8	24,226	-9.49	20,848	-13.9
14	한국	7,375	-14.0	5,918	-19.8	7,174	21.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W社	특기사항	광통신 관련 유통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광섬유케이블, 광 관련장비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동 사는 현재 다수의 한국기업과 거래하고 있으며, 광통신 관련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제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현재 고품질을 요구하는 품목에 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FTA 타결을 계기로 다양하게 품목을 확대할 의향이 있음.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산과 차별화되는 한국산의 강점인 품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과 신속한 하자관리가 필요함.		

기업명	A社	특기사항	광통신 관련 유통업체
매출규모('13)	A\$7) 1,300만	품목	광섬유케이블, 광 관련장비
담당자	Robert Nathan	직책	General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 기대되므로 향후 한국산 제품을 검토할 의향이 있음. ▪ 관세 철폐 시 한국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경쟁 수입국인 중국의 제조기술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 및 거래 조건이 제공되어야 할 것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광통신 부품의 경우 단가가 매우 저렴한 제품이지만 수요 자체가 많고 시장 지배적인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미세한 가격 차이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FTA 발효 시 5%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며, 현재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지 바이어에 의하면 중국산의 품질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FTA로 발생한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실제 구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 및 거래 조건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지 유통업체들은 수차례 현지 언론을 통해 소개된 한국의 IT, 통신 기술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미디어나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함.

7) 호주달러(Australian Dollar)를 의미하며, 동 보고서에서는 별도 표기 없을 시 미국달러(US Dollar) 기준

전기·전자

3. 전력 케이블

품목명	전력 케이블	HS Code	8544.49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노후 전력 케이블에 대한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 ▪ 관세인하 이후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수입동향

- 전력 케이블 수입규모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수입액은 약 5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과 광업 경기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이 주춤했으나, 노후 전력 케이블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전력 케이블 구매는 대부분 현지 전력기업의 공식 입찰을 통해 진행되며, 입찰 시 국제규격인 IEC, CE 및 호주 규격 AS/NZ1429와 전기 안전 인증 AS/NZS 60950.1:2003 등이 요구됨.
- 글로벌 케이블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포함,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47%를 차지함.
 - 한국은 주요 수입대상국이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며 2013년 한국 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12% 성장한 1,900만 달러를 기록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476,722	39.7	514,804	8.0	535,602	4.0
1	중국	278,742	30.4	275,216	-1.3	253,635	-7.8
2	뉴질랜드	26,787	16.2	36,166	35.0	32,500	-10.1
3	미국	17,646	19.0	17,518	-0.7	21,581	23.2
4	태국	14,198	-12.4	14,354	1.1	20,114	40.1
5	한국	20,835	70.1	16,953	-18.6	18,930	11.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Marubeni Australia	특기사항	글로벌 종합상사
매출규모('13)	A\$ 7억	품목	케이블, 변압기, 화학 등
담당자	비공개	직책	Category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철폐로 공급 가격이 조정될 경우 경쟁력 향상 기대 - FTA 타결을 계기로 다양한 한국산 제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호주의 엄격한 품질인증 준수가 필요하며 전력 케이블이 상당부분 프로젝트 발주에 사용되므로 입찰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즉, 공급가능한 모든 유형의 케이블을 제시하기보다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타깃으로 한 입찰 참여가 필요함. - 대부분의 입찰이 호주달러로 시행됨에 따라 호주달러 거래 권장		

기업명	SP Ausnet	특기사항	전력기업
매출규모('13)	A\$ 15억	품목	케이블, 변압기, GIS
담당자	Siva Shanmugam	직책	Category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철폐로 공급가격 하향 조정 기대 ▪ 한국산 제품 수입을 검토해본 적은 있으나 해당 업체의 호주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성사되지 않은 바 있음. ▪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와 함께 수출 이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글로벌 품질 규격 및 호주 전기 안전 인증 준수 ▪ 입찰 참여시 호주 수출이력 내역 필수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현재 다수의 국내 케이블 제조업체가 호주에 진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 현지 전력청 또는 전력기업의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한국산 케이블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호주 수출이력이 전무한 국내업체는 단독 입찰 참여보다는 주요 EPC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권장
- 입찰 시장에서의 수요가 상당하므로 입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입찰 시장에서의 상품 평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입찰시장의 경우 물품 하자 및 신속하지 못한 A/S에 대한 평가가 신속하게 확산되어 의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입찰정보 확보와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현지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4. 납축전지

품목명	소형 납축전지	HS Code	8507.20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5년 철폐 ⁸⁾
유망사유	- 호주 내 소형 납축전지가 산업용 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폭 넓게 사용되며 수요처가 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제품의 크기 및 종류가 다양한 한국산 제품이 유리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수입동향

- 호주의 소형 납축전지 수입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 규모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9.3% 증가한 약 300만 달러를 기록
- 소형 납축전지는 장난감 자동차, 가정용 보안경보 장치 등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이 우수한 한국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그러나 여전히 저가 제품은 중국산이, 고가 제품은 미국 및 유럽산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중국산 수입시장점유율 40.4%, 미국산 16.3%), 한국산은 수입시장 점유율 2%에 머물러 있음.
- 수입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중국산 제품은 최근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문제로 수요가 소폭 하락함.

8) 발효 즉시 4%로 인하, 2년차부터 4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하, 5년차 1.1일부로 무관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141,958	30.1	160,628	13.2	155,653	-3.1
1	중국	57,031	19.8	72,529	27.2	62,857	-13.3
2	미국	23,517	66.3	26,034	10.7	25,312	-2.8
3	독일	11,279	-9.4	13,359	18.4	13,362	0.0
4	영국	9,664	256.7	4,595	-52.5	5,918	28.8
5	태국	4,804	45.2	5,430	13.0	5,884	8.4
10	한국	2,496	16.2	2,107	-15.6	2,935	39.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H社	특기사항	한국산 전지 전문취급
매출규모('13)	400만 달러	품목	2차 전지
담당자	Mr. Ian J	직책	CEO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지의 성능은 수명과 안전성으로 판단하며 한국산 제품은 안전성에서 중국산보다 훨씬 뛰어나므로 FTA로 관세가 철폐 되면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유리해져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축전지는 사양 외에 고위험, 화학물질취급 등의 주의 경고문 등을 부착하게 되어있으나 한국산의 경우 표기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 - 대량 구매 시 현지에서 재포장할 경우 비용이 대폭 증가하므로 수출용 패키지를 개발할 경우 경쟁력 상승 기대		

기업명	B社	특기사항	수입 유통사
매출규모('13)	800만 달러	품목	2차 전지
담당자	Mr. Peter C	직책	CEO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호주 내 산업용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의 입지가 크나,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에 불안함을 내재하고 있어 관세인하가 한국산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현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지 유통망 확보가 중요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호주시장에서 한국산 소형 납축전지는 특정 수출업체별로 공급하기 보다는 여러 공급업체의 제품이 한꺼번에 섞여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공급되는 물량의 브랜드와 각 공급업체들을 호주 수입상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므로 호주 수입업체들에게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제조사 차원에서 현지 유통망을 정비하고 현지 시장에 부합하는 포장 방식 및 정확한 성분 표기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소형 납축전지는 산업용에서 가정용으로 수요처가 확대되면서 가격 뿐 아니라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긴 제품의 수요 증가
 -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미국이나 독일산 제품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나 중국산 보다는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음.
 - 고위험 화학물질인 황산과 대표적 중금속인 납이 사용되므로 케이스 밀봉 시 특수접합 기술 등이 활용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시급

5. 공기청정기 필터

품목명	공기청정기 필터 (산업여과기)	HS Code	8421.39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호주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로 대부분의 공장 및 건설 프로젝트에 공기청정기 필터(산업여과기)를 사용 - 현지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 플랜트 및 산업프로젝트 발주 증가로 프로젝트에 사용될 산업여과기 수입수요 증가 예상		

□ 수입동향

- 호주의 공기청정기 필터 수입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112.4% 증가한 약 3억 달러를 기록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조율하고 있어 현지 빌딩 및 공장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를 정화하여 배출할 수 있는 산업용 여과기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공기청정기 필터 시장은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현재 주요 수입국가로 한국이 총수입의 45%로 가장 높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과 태국이 뒤를 이음.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159,594	18.3	288,577	80.8	613,008	112.4
1	한국	4,245	263.3	75,141	1,669.9	271,091	260.8
2	중국	23,863	135.9	34,588	45.0	111,868	223.4
3	태국	7,555	-57.1	31,974	323.2	59,476	86.0
4	미국	35,662	16.4	34,319	-3.8	43,490	26.7
5	이탈리아	9,505	105.0	6,984	-26.5	19,437	178.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FSAA	특기사항	산업용 여과기 호주협회장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산업용 필터
담당자	Robert Bell	직책	General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품질이 구매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관세 인하 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최대 수입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시장점유율 지속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기술 향상이 필요함.		

기업명	Camfil Farr	특기사항	세계 최대(스웨덴) 여과기 수출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산업용 필터
담당자	Ruslan Shaymiev	직책	State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제조수출기업은 다양한 모델과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호주 현지 시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관세철폐가 한국제품 수입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현지 업체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FTA 발효로 한국산이 지속적으로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
 -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이나 품질이 뛰어난 미국산과의 경쟁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12년 7월, 탄소세(Carbon Tax) 도입으로 현지 대부분의 공장 뿐 아니라 일반 상업용 건물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기청정 필터 사용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산업용 필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건축자재

6. 알루미늄 자재

품목명	알루미늄 플레이트	HS Code	7606.12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자동차산업 위축으로 자동차 부문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호주 건설경기 회복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음. ▪ 식품 가공산업에서의 수요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		

□ 수입동향

- 알루미늄 플레이트 수입 규모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13년 수입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억 3,000만 달러를 기록
 - 저가의 중국산 수입이 전체 수입시장의 35%를 차지하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한국산 수입액 또한 감소 추세이나 중국 및 기타 경쟁국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
- 호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 식품 가공업, 자동차 산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
 - 건설, 자동차 산업의 수요 전망은 불확실하나 식품 가공산업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어 동 분야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됨.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241,662	-37.6	210,285	-13.0	215,138	2.3
1	중국	83,719	-61.0	74,266	-11.3	75,286	1.4
2	바레인	26,565	8.9	33,186	24.9	28,085	-15.4
3	이탈리아	28,759	25.9	22,068	-23.3	23,640	7.1
4	독일	27,544	-11.7	19,922	-27.7	19,030	-4.5
5	그리스	16,299	-32.6	14,612	-10.4	13,158	-10.0
15	한국	2,249	3.1	2,097	-6.8	2,056	-2.0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A社	특기사항	호주 주요 금속 트레이딩 업체
매출규모('13)	A\$ 2억 1,000만	품목	철강, 알루미늄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산업 침체에 따른 현지 철강 시장 불황 및 경쟁 심화로 철강 수입은 당분간 자제하고 알루미늄 자재 및 제품 수입을 늘릴 계획으로, FTA 발효에 따른 가격 인하가 자사의 공급선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최근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알루미늄 자재의 국내 구매물량을 수입으로 전환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신규 공급 시 호주 알루미늄 플레이트 인증 필요(AS/NZS 1734 - Flat sheet, coiled sheet and plate) - 여전히 저가의 중국산 수입이 독보적으로 많으며 호주 수출을 위해서는 자동화 생산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생산 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		

기업명	S社	특기사항	NSW주 ⁹⁾ 주요 알루미늄 트레이딩 업체
매출규모('13)	A\$ 1,800만	품목	알루미늄 플레이트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호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알루미늄자재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동 사는 주로 유럽, 일본 및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에 유통 중이며 FTA로 기존 공급선 대비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면 공급선 다각화를 고려할 수 있음. - 단, 기존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향후 3년간 수요는 불확실하며 수입 확대여부는 대체 산업인 소비재 제조업의 전망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조달기간(Lead Time)이 유럽산보다 짧아야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산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현지 거점이나 물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력 있는 컨테이너 운임 확보 역시 필수적이며, 동 분야는 공급선 변경에 대해 특히 보수적이므로 로컬업체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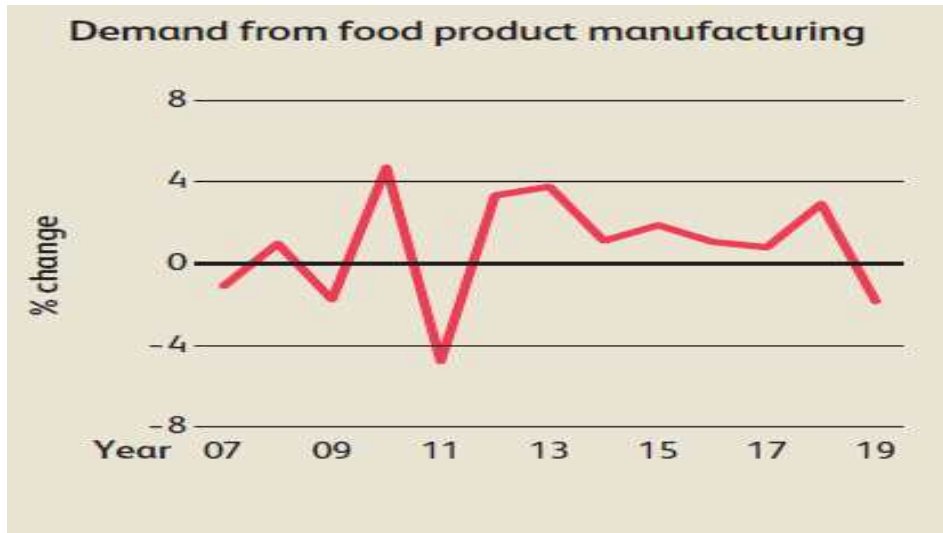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알루미늄 플레이트 시장은 전통적으로 저가의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며 한국, 인도네시아 등 대체 공급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호주는 시장 특성상 신뢰 위주의 거래를 중시하여 한번 선정된 공급업체는 쉽게 변경하지 않으므로 높은 기술력과 관세인하에 따른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바이어 만족도를 높이면 꾸준한 수출 확대 가능
- 현지 자동차 산업 불황에 따라 기존 수요처보다는 식품 가공산업 등 소비재 제조업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식품 제조 및 패키징 산업의 알루미늄 플레이트 수요는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입 확대에 이어짐.

9) New South Wales

<식품 제조부문의 알루미늄 플레이트 수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IBIS Report

- 이에 따라 호주 식품 제조업을 겨냥한 맞춤형 제조가 필요한데, 호주 식품 패키징에만 적용되는 등급은 따로 없으나, alloys 1200, 3003, 5005 등이 식품 패키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등급임.

7. 못, 너트

품목명	못, 너트 등 산업용 금속제품	HS Code	7318.15 7318.16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원가절감을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호주산 비중 축소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세 ▪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경쟁력 제고 기대		

□ 수입동향

- '13년 못, 너트 등 산업용 금속제품 수입은 약 2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9% 감소했으나, 한국 제품 수입액은 160% 증가한 900만 달러 기록
 - 수입 감소는 호주 내 경제 및 제조업 불황에 기인하며,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도 줄었으며 엔저에도 불구하고 對일본 수입도 감소
 - 한국산 제품 중에서는 특히 파손방지 고강도 볼트 및 산업용 유체연결 너트 및 조인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하반기부터 1년간 20여 개의 금속제품업체가 도산하는 등 호주 금속산업은 원가 상승과 저가 수입품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 건설업체의 호주 내 대형 토목, 광산 프로젝트 입찰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한국산 제품 구매가 증가할 전망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2, 3차 프로젝트 확장 가능성이 상존하여 FTA와 맞물려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292,291	13.4	293,586	0.4	276,301	-5.9
1	중국	100,423	13.0	108,880	8.4	95,891	-11.9
2	미국	50,979	15.2	51,615	1.2	54,346	5.3
3	대만	47,269	5.2	41,193	-12.9	33,516	-18.6
4	일본	19,109	16.1	19,099	-0.1	17,090	-10.5
5	독일	16,399	-7.5	18,403	12.2	15,504	-15.8
7	한국	3,053	106.3	3,487	14.2	9,064	159.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HS Code 7318.15와 HS Code 7318.16의 수입액을 합산하여 집계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A社	특기사항	산업용 금속 소모품 전문 도매유통사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산업용 소모품 유통
담당자	Mr. Jack Ellis	직책	Business Development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수입제품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 증가 - 월등한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지 제조 물량이 계속 줄어들 전망이어서 관세인하가 한국산 제품 구입을 고려하게 할 것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저가의 중국산과 고가의 호주산 및 미국산 제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한국산은 중간 가격대의 시장을 형성 - 품질이 가장 중요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		

기업명	ITW Buildex	특기사항	제조 수입사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못, 너트 등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동 사는 스크루 못, 와셔 등을 제조하며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기 위해 수입도 병행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을 구입 ▪ 한-호주 FTA로 인해 단순 저가제품보다는 파손방지 고강도 볼트(anti-broken stud) 등 고기능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당사가 취급하는 부품은 저가 제품으로 원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항상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낮은 단가로 많은 수량을 구매해야하는 제품 특성상 샘플과 실제 제품의 품질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
 -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으나, 사후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현지 생산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할 전망
 - 한국산 제품 가격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은 어려우나 다만, 일본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수한 품질 유지, 사후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용 증명 필요
 - 호주 내 관련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소한 품질불량 문제는 공급업체 뿐 아니라 구입업체에도 치명적임.
 - 바이어들은 가격만큼이나 기업의 거래내역을 중시하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함.

- 중장기적으로 현지화 제품 개발이 필요
 - 한국산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나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 제품이 다수임. 한국 제품이 콘크리트, 자동차부품용에 특화된 것과는 달리 호주 제품은 나무, 건물 외벽 유리 고정용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
 -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라도 현지 용도에 맞추어서 수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지 전시회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주요 시장인 건설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경우 관련 전시회 및 행사 참여가 매우 활발한 것과는 달리 한국업체의 참여는 저조함.
 - 작고 폐쇄적인 호주시장에서는 전시회를 통해 바이어들과 교류하고 현지 시장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함.

8. PVC 바닥재

품목명	PVC 바닥재	HS Code	3918.10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카펫 바닥재에 대한 수요가 위생문제 및 트렌드 변화로 줄어들면서 공공장소와 개인 단독주택에도 PVC 바닥재 수요가 확대 ▪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품질 우위를 가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수입동향

- '13년 기준 호주의 PVC 바닥재 수입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약 1억 달러로 집계
 - 중국산이 수입 시장을 주도('13년 기준 20%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사이 한국산 제품의 성장률은 괄목할 만함.
 - 한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1년 3%에 불과했으나 對호주 수출액이 2012년 66%, 2013년 58% 등 대폭 상승하며 2013년 약 1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기존에 가격경쟁력에 치중되었던 시장구조는 제품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품질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
 - 호주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부동산과 건축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바닥재 소재가 다양화되어 PVC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109,661	6.7	102,277	-6.7	103,857	1.5
1	중국	14,898	35.4	17,976	20.7	21,255	18.2
2	영국	21,930	12.2	17,124	-21.9	16,382	-4.3
3	프랑스	16,346	-12.2	13,978	-14.5	12,945	-7.4
4	스웨덴	14,147	-26.1	13,067	-7.6	11,495	-12.1
5	한국	3,884	-22.2	6,440	65.8	10,141	57.5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Carpet Tiles 1	특기사항	바닥재 전문 유통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카펫, PVC 바닥재, 나무 바닥재
담당자	Vince Perry	직책	Managing Directo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간 저렴한 중국제품을 주로 다루었던 업체로 최근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음. 한국산이 품질과 손쉬운 시공 면에서 중국제품에 비해 우위를 차지한다고 평가하며,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한국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수적임.		

기업명	Allplastics Engineering	특기사항	호주 최대 플라스틱 건축자재 유통업체
매출규모('13)	A\$ 23억 410만	품목	PVC 바닥재, 인테리어 플라스틱 건축자재
담당자	Vicken Kalloghlian	직책	Managing Directo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품질을 우선시하는 업체로 해외 전시회에서 접한바 있는 한국산 제품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음. · 관세인하는 한국산 제품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현지의 필요와 선호도가 반영된 제품 개발이 필수적임.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PVC 바닥재는 가격경쟁력이 치열한 제품으로,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제품의 특성상 세련된 디자인 개발과 편리한 시공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 특히 공공장소나 쇼핑센터의 바닥재로 널리 사용되는 트렌드에 맞춰 미끄럼 테스트나 불연 테스트 등 제품연구 결과를 바이어에게 제시하는 방안 고려
 -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패턴이나 색상을 선호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여 바이어와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함.
- 아직까지 한국산 바닥재의 인지도는 호주에서 낮은 수준으로 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석유화학

9. 폴리스티렌

품목명	폴리스티렌	HS Code	3903.11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5년 철폐 ¹⁰⁾
유망사유	▪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호주 제조업의 고비용 구조에 따라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수요 확대 중 ▪ 고가의 단열재 원료인 폴리우레탄 대체재로 폴리스티렌의 수입이 '12년 이후 대폭 상승		

□ 수입동향

- 호주의 폴리스티렌 수입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3년 한국제품 수입도 세 자릿수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
- 폴리스티렌은 단단하고 습기 저항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단열재, 방음재 및 포장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 현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산업용 수요를 중심으로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
 - 현지에서 EPS(Expanded Polystyrene)로 불리는 폴리스티렌은 가격대비 높은 벌크 운송비용 및 신속 배송을 요구하는 산업 특성상, 전통적으로 현지 제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지 제조업 원가 상승과 효율적인 운송 방식의 등장으로 아시아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0) 발효 즉시 4%로 인하, 2년차부터 4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하, 5년차 1.1일부로 무관세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62,218	21.7	65,365	5.1	77,256	18.2
1	대만	0	-5.7	4,127	∞	31,676	667.6
2	한국	0	0	2,805	∞	16,068	472.9
3	바하마	2,263	26.1	2,271	0.4	2,620	15.4
4	태국	650	-5.7	469	-27.9	275	-41.4
5	인도	0	0	32	∞	63	98.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S社	특기사항	시드니 소재 주요 트레이딩 업체
매출규모('13)	A\$ 4,000만	품목	화학/플라스틱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최근 한국산 제품 공급 시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이미 현지에서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임. · 중국산 대비 높은 품질 수준은 이미 검증되었고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 또한 제고되어, 한국산 수요가 증가가 기대됨.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호주가 아세안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해 동남아시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한국 업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호주 업체 특성상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y, DDP)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지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 서비스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됨. ·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 수출 경력(reference)이 있을 경우 호주시장 진출이 용이함. · 호주 정부는 환경규제에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회(Expanded Polystyrene Australia)를 사전에 접촉하여 관련 절차를 숙지해야 함. · 관세 인하에 따른 단기간 시장점유율 확장 목적의 저가공세는 덤핑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		

기업명	A社	특기사항	NSW주 주요 건축용 단열재 공급 업체
매출규모('13)	A\$ 1,900만	품목	폴리우레탄, EPS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동 사는 단열재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우레탄 관련 제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현지 관련 산업 침체에 따라 고가의 폴리우레탄 제품을 EPS로 대체 수입하는 것을 고려 중 · 기존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EPS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안전과 관련된 호주의 엄격한 내열성 규정에 따라 얇은 두께에도 높은 단열성을 보유한 대체재인 폴리우레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엄격한 인증에도 불구하고 저가 EPS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 · 한국산의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는 충분히 시장에서 주효할 것으로 예상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호주 인증(Australian Standard 1366 pt 3) 취득은 필수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호주 건축용 단열재 시장에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EPS 원료 활용이 늘고 있으며 실제로 '11년에는 전무했던 한국, 대만산 수입이 '13년에 큰 폭으로 상승함.
 -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로 경쟁국 대만은 물론 저가의 태국 및 인도산 제품 대비 경쟁력 제고 기대
 - '13년 발효된 호주-말레이시아 FTA로 무관세로 수입되는 말레이시아산 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되나 말레이시아산이 호주 품질 기준(EPS Grade)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EPS 시장은 주 공급 시장인 단열재 외에도 포장, 네온사인, 영화 세트 제작 및 조선 산업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고객에 맞춤형 EPS 공급이 필요
 - 호주 EPS 기준인 Australian Standard 1366 pt 3 규정 준수는 물론 현지 EPS 협회(epsa.org.au)를 접촉하여 산업별 EPS 등급에 대한 숙지도 필수임.

10. 유기계면활성제

품목명	유기계면활성제	HS Code	3402.20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호주 내 생산은 가정용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수입 제품의 진출 여지가 많음.		

□ 수입동향

- 호주시장의 유기계면활성제 수입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산 수입도 계속 늘어나 '13년에 전년대비 9.9% 증가한 1,600만 달러를 기록
 - 무관세를 적용받는 뉴질랜드가 총 수입의 약 1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며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음.
- 계면활성제는 일반 가정용 세제 뿐 아니라 콘크리트 혼화제, 섬유, 우레탄수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호주 현지 생산은 대부분 가정용 제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제품은 아직까지 호주시장에서 인지도는 높지 않으나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음.
 - 호주의 유명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빨래용 세제 'Vanish'는 한국에서 모든 내용물을 수입하고 호주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139,370	32.2	179,125	28.5	196,922	9.9
1	뉴질랜드	46,491	2.5	37,728	-18.9	32,029	-15.1
2	중국	9,306	25.8	19,355	108.0	27,383	41.5
3	폴란드	9,722	104.7	13,234	36.1	19,967	50.9
4	인도네시아	4,783	557.5	11,402	138.4	19,583	71.8
5	영국	20,063	195.7	22,703	13.2	16,966	-25.3
6	한국	161	52.7	15,025	9,206.7	16,405	9.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Robinson Management Services Pty Ltd	특기사항	계면활성제 제조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계면활성제
담당자	Kenneth Leigh Robinson	직책	Directo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동 사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고 공급가격이 조정될 경우 한국 제품에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현지 유통업자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함.		

기업명	Jennax Solid Surfaces	특기사항	계면활성제 제조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계면활성제
담당자	Max William Lyle	직책	General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철폐 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한국제품의 경쟁력 향상 기대 · 현재 한국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추이를 감안하여 수입 고려 예정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한국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한국 제품 및 기업 홍보 마케팅이 필요함.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시장 지배적인 브랜드가 없어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큰 시장
 -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개선이 예상되며 가정용의 경우 아시아에 소 재한 미국 및 유럽 브랜드 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과의 경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업용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가정용의 경우는 현지 소비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 (Coles, Woolworth, Target 등)를 통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PB(Private Brand)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

자동차부품

11. 자동차 범퍼

품목명	자동차 범퍼	HS Code	8708.10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OEM 부품시장이 아닌 A/S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호주 내 한국차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FTA 체결로 한국차 수입이 더욱 늘어나면 A/S 부품시장도 확대		

□ 수입동향

- 자동차부품은 OEM 부품과 A/S 부품으로 나뉘어 수입되고 있음.
- 현지 주요 자동차 제조사(포드, 도요타, 홀덴) 모두가 2016~2017년 공장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동 제조사에 납품해 온 OEM 부품시장 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될 전망
 - 그러나 현지 생산 위축에도 자동차 신규수요 충족을 위한 수입물량은 증가할 것이며, 특히 FTA 타결로 인해 한국산은 더욱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범퍼 수요 역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호주의 전체 수입금액은 1억 200만 달러로, 이 중 한국산 수입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730만 달러를 기록
- 한국산 제품 수입비중 증가
 - 전체 수입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입은 증가하여 수입시장 점유율이 7%에 이르는 등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지속 상승
 - 對일본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태국 등 아시아 현지공장을 통한 수입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일본 완성차 제조사들 및 협력사들의 수출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보임.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91,495	39.3	104,082	13.76	102,560	-1.5
1	일본	33,102	32.0	35,519	7.3	29,997	-15.6
2	태국	14,357	114.8	20,445	42.4	22,954	12.3
3	독일	11,212	20.7	12,513	11.6	12,681	1.3
4	중국	5,818	61.6	8,657	48.8	8,405	-2.9
5	한국	5,994	33.6	6,484	8.2	7,316	12.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A社	특기사항	A/S용 자동차부품 전문 취급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자동차부품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관세인하는 현지 마케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관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고, 환율이나 소비자 성향 등 다른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함.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까지도 저가 이미지가 강함. ▪ 한국산 제품은 도색 편의성, 내구성 등의 품질이 우수하나 호환 제품의 종류가 적은 것이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기업명	B社	특기사항	한국산 자동차부품 전문 취급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자동차부품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매가에 비해 수입가 자체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관세 인하가 직접적인 소비자 가격인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 ▪ 다만, 수입 및 유통업체의 마진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수입/유통업체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가격경쟁력 개선은 궁극적으로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산 자동차에 한정된 부품 공급은 시장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음. ▪ 호주는 다품종 소량수요 시장이므로 최소 주문수량을 낮출 필요가 있음.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관세 철폐는 자동차부품 수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일본 브랜드와 경쟁에서 열세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13년 호주의 자동차 총수입 물량 중 일본 브랜드 비중 50%(태국공장 제조분 포함), 한국 브랜드 7%, 신차 판매 기준 시장 점유율은 13%로 추정됨.
- 호주 내 자동차 범퍼의 마진율이 매우 높아 관세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 그러나 현행 5%의 수입관세는 부가세 산정 시에도 가산되고 있어 범퍼를 포함한 한국산 자동차부품 구매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임.
- 관세 철폐가 판매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간의 시차 존재
- 장기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개선, 라인업 다양화 등이 필요
 - 최근 한국산 자동차의 신차 판매 비중이 10%를 넘어 '13년에는 12%에 근접하였으나 여전히 일본산 및 일본 브랜드의 태국산 자동차에 비해 점유율이 낮음. 또한 호주가 일본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호주-일본 FTA 타결 이전에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국산 자동차에 한정된 부품 공급은 태생적으로 제한된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본산 및 현지 자동차 브랜드와 호환이 가능한 부품개발이 시급함.
- 장기적으로 다양한 자동차 기종에 적용 가능하도록 품종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식품

12. 면류

품목명	국수 등 면류	HS Code	1902.19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한류에 따른 인지도 상승과 FTA 관세인하 효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현지 주요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아시아 식료품 코너를 확장하는 추세 ▪ 다수의 한국 식품업체가 호주 식품 시장의 잠재성을 높게 평가하며 일부 기업은 지사 설립 등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식품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동향

- 호주의 기타 면류 수입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약 1억 달러를 기록
- 전통적으로 우세한 이탈리아 파스타 제품을 제외하면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에 이어 對호주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함.
- 아시아계 인구 증가로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한국 제품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
- 전국에 약 2,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호주 슈퍼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Woolworth나 Cole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아시아계 이민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안 식료품 코너를 확장하고 있어 아시아 식품 판매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92,510	16.2	98,009	5.9	107,032	9.2
1	이탈리아	23,525	10.6	24,484	4.1	25,960	6.1
2	말레이시아	17,578	55.5	16,573	-5.7	20,400	23.1
3	중국	13,091	-13.6	15,201	16.1	15,079	-0.8
4	태국	11,244	25.6	11,463	1.9	13,462	17.4
5	한국	6,605	15.1	7,497	13.5	7,614	1.5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Makmur Enterprise	특기사항	호주 최대 아시안 식품 수입 유통업체
매출규모('13)	A\$ 1,800만	품목	만두, 국수, 두부, 라면
담당자	Rudi Tjangdjaja	직책	General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대형유통업체인 Woolworth, Coles 모두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유럽계의 식품위주이던 과거와는 달리 아시아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미 현지에 소개된 중국이나 태국음식의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FTA 발효 또한 한국 제품의 수입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구매 결정에는 가격조건 이외에도 운송비와 기간, 유통기간, 제품 위생에 대한 민감한 대응 등의 조건이 더욱 중요하므로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호주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음.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한국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식품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임.		

기업명	AMYSON	특기사항	현지 아시안 식품업체의 국수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쌀국수, 밀국수, 각종 소스 및 식재료
담당자	Donald Kha	직책	General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한 경험은 많지 않으나 현지에 소개되는 다른 아시아 식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며, 다른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한국으로부터 현재 조미김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산 면류에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므로 수입 확대나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입 등의 긍정적인 검토 가능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이미 아시아 식품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나 태국산 식품과 차별화가 필요하므로 프리미엄 제품 패키지 출시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차별화가 중요함.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관세 철폐 효과와 호주 소비자들의 아시안 식품 수요 증가 트렌드가 맞물려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현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아시아 식품 유통 전문업체를 우선 공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한국 식품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현지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단독 진출 시 관세 인하 이후에도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 Woolworth, Coles, Aldi 등의 대형 유통체인은 PB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으므로 우선 PB 제품으로의 판매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의 경우 기존의 중국 및 태국산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 제품 판매가 필요함.

13. 음료

품목명	음료	HS Code	2202.10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비만 인구가 증가에 따라 건강음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천연 재료를 소재로 개발된 음료의 수입이 증가함. ▪ 해당품목은 주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아시아계 소비자의 아시아산 음료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 수입동향

- '13년 호주의 음료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매년 총수입이 증감을 거듭하고 있음
 - 까다로운 식품위생 규제로 외국 기업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며, 오래 전부터 시장에 정착한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브랜드 제품이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함.
 - 한국산 수입은 '13년 기준 2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최근 성장세에 있는데, 이는 관광객 증가 및 아시아계 이민 인구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아직 한국 제품은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점을 통해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의 판매는 미미한 상황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음료 및 유기농 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브랜드의 음료가 프리미엄 음료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191,131	52.7	201,723	5.5	196,915	-2.4
1	뉴질랜드	69,036	64.3	83,047	20.3	85,113	2.5
2	오스트리아	61,084	35.9	48,776	-20.2	41,351	-15.2
3	스위스	19,353	154.4	21,050	8.8	22,369	6.3
4	미국	11,191	91.5	12,529	11.9	10,483	-16.3
5	이탈리아	4,517	1.3	5,149	14.0	5,547	7.73
12	한국	2,365	30.1	1,950	-17.54	2,048	5.0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JFC Australia	특기사항	호주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수입 유통업체
매출규모('13)	A\$ 5,900만	품목	쌀, 주류, 음료, 냉동, 냉장식품
담당자	Hiroyuki Takeuchi	직책	National Purchasing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과거 한국산 제품을 접한 바 있으나 단가와 최소주문수량이 높아 보류한 경험 있음. ·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식품업체에 비해 한국 식품업체는 호주 현지 시장 규모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지속적인 공급 의지를 바이어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호주 식품시장 구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제품 대비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식품의 용기는 대부분 획일화되어 있어 용기의 디자인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등 비가격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기업명	MBC(Metro Beverage Company)	특기사항	음료전문 유통기업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주스, 탄산음료, 생수
담당자	Henry Velkovski	직책	General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제고가치가 있다고 판단 · 아직까지 한국산 음료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가 즉각적인 수입확대로 연계되는 데는 시간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한-호주 FTA와 한국 음료를 홍보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이미 선호도가 확고한 주부나 일반 연령층보다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함.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아시안 식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시아계 시장 뿐 아니라 현지 주류 시장으로 판매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한국산 음료의 경우 아직 호주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이어들이 재고 부담으로 인해 소량 주문을 선호하므로 소규모 주문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가 필요함.
- 호주와 같이 인건비가 높은 국가로 수출 시, 장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효율성을 높인 SRP(Shelf Ready Packaging) 혹은 RRP(Retail Ready Packaging) 방식¹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형 유통채널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SRP 제품 매대 진열 모습>



11) 매장 직원이 손쉽게 상품을 매대에 진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장 방법으로 호주의 대형 유통채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특히, 상부의 커버만을 제거함으로써 바로 매대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어 상품 진열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함.

기타 품목

14. 화장품

품목명	화장품	HS Code	3304.20 3304.30 3304.99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호주 화장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 평균 3% 이상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됨. 30대 미만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아시아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존 고객인 아시아계 이민자와 관광객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적인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음.		

□ 수입동향

- '13년 기준 호주의 화장품 수입규모는 약 5억 달러 규모로 매년 견고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13년 기준, 미국(점유율 30%)과 프랑스(19%)가 유명 브랜드의 호조로 전체 수입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산 제품의 수입도 전년대비 24% 상승하는 등 선진국 메이저 브랜드 선호도가 뚜렷함. 이러한 주요 브랜드는 주로 백화점 및 주요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한편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제품(15%)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는 10대, 20대 젊은 층과 이민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 브랜드 및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 한국산 제품 수입은 2012년 이후 두 자리 수 성장을 보이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483,343	11.2	487,908	0.9	509,916	4.5
1	미국	167,432	15.0	157,617	-5.9	170,689	8.3
2	프랑스	78,508	11.9	89,052	13.4	90,832	2.0
3	영국	29,986	-3.1	32,406	8.1	39,168	20.9
4	중국	36,015	-0.5	42,167	17.1	38,833	-7.9
5	독일	29,353	28.4	21,910	-25.4	23,647	7.9
12	한국	3,931	6.2	5,538	40.9	7,323	32.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HS Code 3304.20과 HS Code 3304.30, HS Code 3304.99의 수입액을 합산하여 집계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L社	특기사항	스킨케어 및 유기농 제품 유통업체
매출규모('13)	A\$ 400만	품목	화장품(스킨케어)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 제품의 주요 수요고객은 관광객 및 아시아계 이민자로 보수적인 일반 소비층에게는 아직 낮은 상황임. - 주요 수입 품목은 BB크림과 선크림이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OEM 형태로 수입하고 있음. - 홍콩, 대만 등에서도 기타 스킨케어 제품을 비슷한 형식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FTA로 주름개선, 미백 등 다양한 한국산 기능성 제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음.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FTA 발효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 경력을 바탕으로 현지 유망 배급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에서 유행하는 리뷰 블로그 및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야 함.		

기업명	○社	특기사항	호주 최대 온라인 화장품, 뷰티·패션 제품 판매 업체
매출규모('13)	A\$ 1억 8,000만	품목	화장품, 뷰티, 패션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14년부터 동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규 시장으로 한-호주 FTA 발효 시 한국 제품의 수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FTA 발효에 따라 가격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전통적으로 저가의 중국산을 수입하여 10대와 20대 소비자를 타깃으로 공략해 왔으나 최근 동고객층의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메이저 브랜드와 중국산 제품 사이에 한국 제품이 포지셔닝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한-호주 FTA 발효를 기점으로 공급선 다양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한국산 제품 경쟁력 보완을 위한 제언	· 한국산 제품은 아직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므로 현지에서의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노력은 필수 · 온라인 판매 특성상 주문 물량의 신속한 배송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현지업체를 통해 공급 시 적절한 판매 방식(위탁, 재고 판매, 현지 배송)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 · 또한, 프로폴리스(propolis)¹²⁾ 등 특이한 원료를 활용하여 차별화하는 한국 브랜드의 경우 호주 통관 절차상 원료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수		

□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타깃 마케팅이 필요하며 메이저 브랜드보다 낮은 가격에, 중국산보다는 높은 기술력과 독특한 품질을 가진 제품의 적극 홍보가 필요함.
- 호주 화장품 시장은 세 그룹(메이저 브랜드를 선호하는 일반 소비자,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10~20대 소비자, 아시아 이민자와 관광객)으로 구분됨.

12) 꿀벌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식물에서 뽑아낸 물질에 침과 효소 등을 섞어서 만든 물질로 유기물과 미네랄이 풍부함.

- FTA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시장의 젊은 소비자와 기존 아시아 이민자 및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및 제품 판매와 배송까지 함께 고려한 로컬 유통채널 선택이 중요
 - 화장품 시장 매출의 70%가 시드니와 멜버른이 위치한 New South Wales주와 Victoria주에서 발생하므로 동 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함.
- 현지 화장품 관련 규정도 준수 필요
 - 호주에 수입되는 화장품 원료는 산업용 화학 관리법 Industrial Chemicals(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에 따라 산업용 화학으로 분류되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식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상세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 요망
 - * 보건부 : www.nicnas.gov.au/chemical-information/cosmetics
 - * 식약청 : www.tga.gov.au/industry/cosmetics.htm
 - * 패키징 정보 : www.productsafety.gov.au/content/index.phtml/itemId/971654/fromItemId/971652
- 주요 화장품 관련 전시회에 참가해 시장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시회는 아래와 같음.
 - Sydney International Spa & Beauty Expo는 호주 최대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전시회로 '14년 8월 개최 예정(www.internationalbeautyexpo.com.au)
 - IMATS Sydney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관련 전시회로 매년 6개 도시(뉴욕, 런던, 밴쿠버, 시드니, 토론토, LA)에서 개최되며 시드니에서는 '14년 9월 개최될 예정(www.imats.net)
 - Salon Melbourne는 멜버른 주요 뷰티 관련 전시회로 매년 3월 개최됨(www.salonmelbourne.com.au).

15. 산업용 세라믹 용기

품목명	산업용 도자기 (세라믹 용기)	HS Code	6909.19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 스케줄	즉시 철폐
유망사유	▪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식이 크게 개선 ▪ 제조업 R&D 투자확대로 산업용 수요 자체가 증가세		

□ 수입동향

- '13년 산업용 도자기의 수입액은 2,500만 달러 규모로 한국산 제품은 190만 달러를 기록, 중국, 벨기에에 이어 3위를 차지
 - 호주 내 R&D 투자 증가로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도 중저가를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 독일산 수입은 감소하여 대비를 보임.
- 산업용 도자기는 주로 화학제품의 처리용 용기 및 실험실용 용기로 사용되며, 내열 및 내화학성으로 산업용 오븐, 건조기 등에 쓰임.
- 호주의 R&D 투자 증가로 수요 계속 증가 예상
 - 지난 10년간 호주의 R&D 투자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관련 기자재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제조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제조활동을 줄이고 수입을 하기 시작했음. 이에 따라 수입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
 - 주요 수요처는 대학 및 국영 연구시설, 산업 연구실 등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입찰에서는 호주산 제품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나, 국내산의 위축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입제품의 공공분야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12,269	36.9	18,795	53.2	25,301	34.6
1	중국	4,224	74.8	6,534	54.7	11,136	70.4
2	벨기에	1	32.1	4,210	n/a	5,302	25.9
3	한국	1,030	702.4	1,214	17.8	1,915	57.8
4	미국	1,355	41.0	2,355	73.8	1,838	-21.9
5	독일	3,011	39.0	1,803	-40.1	1,309	-27.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바이어 반응

기업명	A社	특기사항	대학 및 연구기관 기자재 납품 전문업체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실험실용 기자재 유통
담당자	Terrence Silva	직책	Business Development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우수하며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산업용 도자기는 단품보다 기자재의 패키지로 유통되는 비중이 높으며 관련 제품과 연관하여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패키지 개발이 필수적		

기업명	C社	특기사항	수입 및 유통사
매출규모('13)	비공개	품목	산업용 기자재 유통
담당자	Mr. Rober Banderham	직책	Purchasing Manager
한-호주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고객층이 달라 직접 경쟁은 어려움. 한-호주 FTA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시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 한국산 제품은 품질 관리 면에서 우수하나 소량주문에 인색한 경향이 많음. 소량 주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구비한다면 시장 확대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봄. - 중국산 제품은 아직까지는 저가를 무기로 경쟁하고 있으나 일부제품의 경우 품질도 한국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

-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
 -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으나 정밀도나 마감은 아직 한국제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로 현지 생산품과 일본 제품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 따라서 FT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기존 시장 뿐 아니라 높은 가격대로의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취급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품질 유지 및 불량품 관리가 매우 중요
 - 해당 제품은 파손되거나 불량품인 경우 수리가 불가하므로 유통사와 사전 협의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필요
 - 한국산 제품은 중저가 시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FTA로 가격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음.

- 북미 및 일본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는 고가 제품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며, 고가품일수록 바이어들이 신뢰도와 기존 거래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납기와 불량제품 관리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수요처에 대한 마케팅 필요
 - 주요시장인 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은 보수적인 구매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케팅 방법으로는 시장 개척이 어려움.
 - 우수한 성능에 대한 철저한 스펙 분석으로 기술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사설연구소, 기업의 연구 개발부서에 전문으로 납품 가능한 현지 유력 유통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함.



작성자

- | | |
|----------|--------|
| ◆ 시드니무역관 | 이지원 과장 |
| ◆ 선진시장팀 | 이동훈 대리 |



Global Market Report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김성수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4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